

# 데버러 스미스(Deborah Smith)의 『채식주의자』 다시쓰기: 번역 관점에서 본 문제점 및 향후 과제

## Deborah Smith's Rewriting of *Ch'aesikjuuija*: Thoughts from a Translation Perspective

신혜정  
조선대학교

Hyejung Shin(hjshin@chosun.ac.kr)

### 요약

본 논문은 2016년 맨부커 인터내셔널상(The 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을 수상한 *The Vegetarian*을 둘러싼 언론과 학계의 엇갈린 평가와 오역논란을 살펴보았다. 한강의 『채식주의자』와 데버러 스미스(Deborah Smith)의 *The Vegetarian*을 분석한 결과, *The Vegetarian*에서 다수의 오역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단순 오역 지적을 넘어 스미스가 ‘오역’하게 된 경위를 역으로 짚어 봄으로써 *The Vegetarian*이 번역이 아닌 로컬리제이션(localization)으로 방향을 설정한 영어 현지화 텍스트임을 밝힌 데 의의가 있다. 결론에서는 스미스의 『채식주의자』 다시쓰기(rewriting)인 *The Vegetarian*의 성과를 논하고 독자 선택을 돕는 번역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한국문학의 영어번역이 나아갈 방향을 제안한다.

■ 중심어 : 『채식주의자』 | *The Vegetarian* | 오역 | 현지화 | 한국문학의 영어번역 | 번역가 브리프 |

### Abstract

This paper explored contrasting responses of the press and the academic circle to *The Vegetarian*, the 2016 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 winner, and delved into the controversy over its faithfulness to Han Kang's *Ch'aesikjuuija*. In the comparison of Han Kang's *Ch'aesikjuuija* and Deborah Smith's *The Vegetarian*, many mistranslation cases have been found in *The Vegetarian*. This paper is meaningful in that it did not stop at discussing translation errors in *The Vegetarian* but probed the cause of Smith's mistranslation and that it identified *The Vegetarian* as an English localization text, instead of a translation text. This paper concludes with a discussion of the achievements of *The Vegetarian* as Smith's rewriting of *Ch'aesikjuuija* and makes suggestions as to what translators and the academic world can do for the reader and the English translation of Korean literature in the future.

■ keyword : *Ch'aesikjuuija* | *The Vegetarian* | Mistranslation | Localization | English Translation of Korean Literature | Translator's Brief |

## I. 연구 배경

2016년 5월, 작가 한강과 번역가 데버러 스미스(Deborah Smith)가 맨부커 인터내셔널상(the 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을 수상하자 언론은 일제히 이를 대서특필했고 두 사람은 화제의 중심이 됐다. 이번 수상은 『채식주의자』를 ‘새롭게 탄생시킨’ 스미스의 번역이 있어 가능했다는 해외의 극찬이 이어졌고,

이미 십 년 전에 발표된 『채식주의자』도 한국에서 다시 주목을 받으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언론에서는 맨부커상이 노벨문학상, 공쿠르(Goncourt)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이라는 점을 강조한 반면, 학계에서는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이 번역 작품에 주어지는 상이며 작가와 번역가가 공동수상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중에게 번역의 중요성 및 파급력을 일깨운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맨부커상을 수상한 *The Vegetarian*에 대한 학계의 초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세계 문학상 도전하는 한국문학...’번역에 달렸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학평론가인 연세대 정과리 교수는 “이번 수상은 번역의 중요성을 알려줬다. 한국 문학이 언어의 장벽 때문에 그동안 한국 안에서만 있었는데, 번역의 힘을 통해 세계문학으로 뻗어가는 계기가 됐다”고 평했다[1]. 번역가이자 문학평론가인 고려대 조재룡 교수는 이번 수상을 “번역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스미스가 한강 고유의 문체를 탁월하게 치환했고 여기에서 승부가 났다. 한강 텍스트에서 보이는 얼마간의 진부함도 번역을 거치며 살아났다”고 하면서 “번역자가 영어를 모국어로 한다는 점과 문학을 전공했다는 점에서 『채식주의자』 번역은 가장 이상적인 사례”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2]. 그러나 스미스의 번역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이들도 곧 부정적으로 돌아섰고, *The Vegetarian*에서 스미스의 오역을 지적하는 이들도 점차 늘어났다. 앞서 *The Vegetarian*의 맨부커상 수상을 “번역의 승리”라고 평가했던 조재룡 교수는 스미스의 *The Vegetarian*을 2010년 제닛 홍(Janet Hong)의 『채식주의자』 영어 번역과 비교하며 살펴본 결과, 스미스가 한국어 해석에 어려움을 겪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주인공 영혜를 원문과는 다른 성격의 인물로 그렸다고 주장했다[3]. 또한, *The Vegetarian*이 “거의 작품 리라이팅 수준”이라고 하면서 스미스의 유려한 문장 때문에 상을 받은 것이므로 이번 “맨부커 수상은 한글 원본 채식주의자」의 승리가 아니라 영어판 *The Vegetarian*의 승리”라고 분석했다[3]. 스미스의 번역으로 한국 문학이 세계문학으로 가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던 정과리 교수도 스미스가 원문에서 평범한 인물인 영혜를 번역에서 특별한 사람으로 그려냈다고 지

적하면서 “작품을 충실히 전달했다기보다 얼마간 왜곡을 감행했다. 심지어 특정한 부분을 누락해서 작품을 훼손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한강의 텍스트에 기대어 창조된 번역자 대버러 스미스의 작품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고 했다[4].

스미스는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하며 훌륭한 번역이라는 극찬과 함께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지만, 국내 번역계와 번역학계에서는 스미스의 *The Vegetarian*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훌륭한 한국문학 작품을 (영어로) 번역한다면 그 번역 또한 훌륭한 영문학 작품이어야 한다”[5]는 신념으로 원문에 대한 충실성보다 원문과 같은 문학성 전달에 치중한 스미스의 새로운 번역을 환영하면서 이러한 흐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는 이들이 있는 반면, 번역가와 번역학자들은 스미스의 오역을 지적하며 그의 번역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조재룡[6]은 스미스의 *The Vegetarian*을 붙어판 번역본과 비교하고 영어를 한국어로 다시 번역하는 등 텍스트를 면밀히 분석한 후, 스미스가 *The Vegetarian*에서 원문의 내용 첨가와 삭제 및 길이조정을 자유자재로 임의로 행하고(p. 704) 소설의 설정 전반을 바꾸어버렸다(p. 708)고 했다. 그는 이러한 ‘다시 쓰기(rewriting)’는 “원문과의 대조작업을 불가능하거나 소용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p. 696)고 했다. 김대중[7]은 *The Vegetarian*의 오역 및 과도한 의역 사례를 들어, 스미스의 번역은 원문의 의도를 왜곡하며 독자의 작품 이해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규는 “『채식주의자』 영어번역, 무엇이 문제인가?”[8]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The Vegetarian*의 오역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오역이 원문에 대한 이해 부족과 번역가의 한국어 장악력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본다면 그것이 바로 스미스 번역의 문제(p. 124)라고 결론 내렸다. 이러한 부정적 평가는, 독자가 만족한다면 번역의 기본에 충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와도 맞닿아 있다. 다음 장에서는 스미스의 *The Vegetarian*이 오역인지, 그리고 그의 번역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을 통해 밝힌다.

## II. *The Vegetarian*의 오역사례

*The Vegetarian*에서 보이는 오역을 몇 가지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아래 예문에서 한강의 한국어 원문은 『채식주의자』 [9]로, 스미스의 영어 번역본은 *The Vegetarian*[10]으로 표기하였다.

### 예문1)

『채식주의자』 p. 43 : “이제 너희 걱정은 다 잊어버렸다. 완전히 자리를 잡았구나.” 장인이 수저를 들며 한마디 했다.

*The Vegetarian* p. 41: “Now you’ve forgotten all your worries,” my father-in-law pronounced, taking up his spoon and chopsticks. “Completely seized the moment!” (필자강조)

여기서 스미스는 한국어 문장에서 생략된 주어(“장인”)를 잘못 파악해 “you”(“너희”)로 번역하였다. 한국어 이해력 부족에서 비롯된 잘못이다.

아래 예문2), 예문3)에서도 한국어 능력의 문제가 보인다.

### 예문2)

『채식주의자』 p. 156 : 지우의 기침소리에 [...] 경기하듯 허공으로 쳐든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필자강조)

*The Vegetarian* p. 134: [S]he [...] clasped her son’s small hand, lifting it up as if playing a game. (필자강조)

아픈 아이가 옆에 들떠 ‘경기(驚氣)를 일으키는 것 같은’ 모습을 ‘경기(競技)’로 이해해 “playing a game”으로 잘못 번역하였다.

### 예문3)

『채식주의자』 p. 176 : 동생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말도 마세요. [...] (필자강조)

*The Vegetarian* p. 151: “How is my sister at the moment?” [...]

“She’s stopped talking.” [...] (필자강조)

여기서는 원문의 “말도 마세요.”를 “말을 멈췄다.”(She’s stopped talking)로 잘못 번역하였다.

또 다른 오역으로 과도한 생략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예문4) 『채식주의자』의 밑줄 친 부분은 *The Vegetarian*에서 생략되었다.

### 예문4)

『채식주의자』 p. 134 : 다혈질인 P는 어서 대답을 들어야겠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이따금 부담스럽게 느꼈던, 강한 여자 특유의 생기가 문득 반갑게 느껴졌다. 그는 P를 안고 싶어졌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몽클한 옛 감정일 뿐이었다. 그의 몸에는 좀전에 자취방에 데려다준 처제에 대한 욕망만이 석유를 부은 불처럼 타고르고 있었다. 기다려, 하고 그는 돌아서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대로 기다려, 곧 올게.” 그리고 그는 이곳으로 달려왔다. 그가 원하는 수준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 그의 알몸을 알고 있는, 급한 부탁을 한번쯤은 들어줄 수 있을 단 한 사람을 찾아서. (필자강조)

*The Vegetarian* p. 115-116: [...] P shouted at him, [...]. A sudden impulse to embrace her gripped him, then faded away as abruptly as it had come. Just the vague memory of an old emotion.

여기에는 ‘그’와 P 사이의 성적 긴장감이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밑줄 부분은 처제에 대한 그의 들끓는 욕망을 그리고 있다. 중요한 것은 옛사랑 P는 ‘그’에게 감흥을 주지 못하고, 금지된 욕망의 대상인 처제만이 ‘그’를 흥분시킨다는 점이다. 그러나 스미스는 이를 생략했기 때문에, 번역본을 읽는 독자는 ‘그’의 ‘석유를 부은 불처럼 타고르는 처제에 대한 욕망’을 읽을 수 없다.

독자 이해를 저해하는 이러한 과도한 생략은 예문5)에서도 나타난다. 『채식주의자』 167쪽에서 ‘그녀’(인혜)는 사태가 이렇게 되기 전에 미리 막을 수 없었을까 자책하며 남편과 동생의 충격적인 성행위 영상을 떠올리는데, 스미스는 원문의 거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는 이 장면을 생략했다.

## 예문5)

『채식주의자』 p. 167 : 영혜의 영덩이에 남아 있는 작고 파릇한 몽고반점이 남편에게 어떤 영감이라는 것을 주었는지 그녀는 알고 싶지 않다. 그 가을 아침 영혜에게 줄 나물을 싸들고 자취방을 찾았을 때 그녀가 본 광경은 상식과 이해의 용량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는 그 전날 밤 자신과 영혜의 나신에 울긋불긋한 꽃을 가득 그리고는 몸을 섞는 장면들을 테이프에 담았던 것이다.

그녀는 그것을 막을 수 없었을까. 그의 행동을 미리 예측할만한 단서를 놓친 적은 없었을까. 영혜가 아직 약을 먹는 환자라는 사실을 그에게 더 강하게 인식시킬 수는 없었을까.

그 아침, 붉고 노란 꽃으로 온통 물감칠이 된 알몸의 영혜 곁에 이불을 쓰고 누운 남자가 그이리라는 생각을 그녀는 꿈에도 하지 못했다. 뛰쳐나가고 싶은 두려움과 싸워 이긴 것은 오로지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하나였다. 그 거부할 수 없는 책임감에 의지해 현관에 놓인 캠코더를 집어들었고, 다음 아닌 그에게서 배운 작동법을 기억해 거기 담긴 것들을 보았다. 불이 붙은 물건인 듯 테이프를 꺼내다 떨어뜨리고, 더듬더듬 휴대전화 버튼을 눌러 두 명의 정신 이상자를 테러가달라는 신고를 하는 동안에도 그녀는 그 모든 것들이 현실임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자신의 눈조차 믿을 수 없었다. 분명한 것은 남편의 행동이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뿐이었다. (필자강조)

*The Vegetarian* p. 143: Of course, there'd been no way for her to guess what ideas her casual mention of that small, blue Mongolian mark would spark in her husband. But shouldn't she have been able to at least make a guess as to the way things were heading—hadn't his recent behavior given her sufficient clues? Could she have found a way to impress on him that Yeong-hye was still on medication, was still ill? The only thing clear to her was that what her husband had done was unforgivable.

예문5)는 한국어에서 세 단락으로 제시되는 데, 영어 번역본에서는 밑줄 친 한국어 두 부분을 생략하고 한 단락으로 묶어 번역하였다. 원문에는 영상을 본 후 ‘인혜’가 받은 충격과 자기 손으로 남편과 동생을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괴로움이 묘사되어 있지만, 번역본에서

는 이런 ‘인혜’의 내면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생략되어, 전달되지 않는다. 영어 번역본 독자가 느끼는 ‘인혜’라는 인물에 대한 이해나 공감의 정도는 원문 독자의 그것과 다를 수밖에 없다.

아래 예문6)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도 있다.

## 예문6)

『채식주의자』 p. 52 : 아버지는 녀석을 나무에 매달아 불에 그슬리면서 두들겨패지 않을 거라고 했어. 달리다 죽은 개가 더 부드럽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다. (필자강조)

*The Vegetarian* p. 49: While Father ties the dog to the tree and scorches it with a lamp, he says it isn't to be flogged. He says he heard somewhere that driving a dog to keep running until the point of death is considered a milder punishment. (필자강조)

스미스는 “달리다 죽은 개가 더 부드럽다”를 “driving a dog to keep running until the point of death is considered a milder punishment”로 번역했다. 이를 이강선[11]은 『채식주의자』는 음식으로서의 개의 육질을 말하는데 *The Vegetarian*은 애완동물에 대한 처벌을 묘사하고 있으며, 개 도살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 번역이라는 점에서 오역이라고 지적했다(p. 299). 이인규[8]도 스미스가 개를 잡아 불에 태우고 두들겨 패서 고기를 먹는 한국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전체 맥락을 잘못 파악하여 엉뚱한 번역이 나왔다고 분석했다(p. 121).

그러나 이처럼 원문과 다른 스미스의 번역을 번역전략으로 보는 이도 있다. 번역가 권상미[12]는 스미스가 영미권 독자의 ‘개고기 식용’에 대한 거부감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오역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상미는 대중의 기호에 맞춰 ‘잘 읽히는’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도 했다. 김가희[13]도 스미스가 번역 수용성(acceptability)을 생각해, 영어권 독자의 혐오감이 덜한 “죽을 때까지 달리게 하는 것이 더 가벼운 벌”(p. 37)이라는 번역으로 바꿨다고 해석했다.

이처럼 예문6)의 *The Vegetarian*이 오역인가 아닌가의 판단은 간단하지 않다. 영어권 독자가 보는 스미스

의 번역은 ‘잘된’ 번역이다. *The Vegetarian*은 가독성과 수용성이라는, 번역 텍스트에 요구되는 미덕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작품 전체에서 이 두 문장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의미를 따져볼 때 스미스의 번역은 중대한 오역이다. 아래에서 스미스의 오역을 자세히 살펴본다.

스미스가 “더 부드럽다”를 왜 “milder punishment”로 번역했나를 생각할 때, 그가 원문을 오독(誤讀)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상기 오역 사례에서 확인된 스미스의 한국어 실력으로 미루어 보면, 그는 “달리다 죽은 개가 더 부드럽다”에서 “더 부드럽다”가 육질을 가리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맥락 상 부드러운 벌, 즉 가벼운 벌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바로 앞 문장에서 개를 때리지 않겠다고 했으므로 그 대신 달리다 죽게 하는 벌을 준다고 생각한 것 같다. 한국에서 식용 목적으로 개를 죽일 때 불에 그슬리고 때린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스미스가 이를 딸을 문 데 대한 벌을 주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상기한 관상미[12]와 김가희[13]의 해석을 들 수 있다. 즉, 스미스가 내용의 잔인성 때문에 영어 독자를 고려해 “더 가벼운 벌”이라고 의도적으로 바꿔 번역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H]e heard somewhere that driving a dog to keep running until the point of death is considered a milder punishment.”(달리다 죽게 하는 것이 더 가벼운 벌로 여겨진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다)는 번역전략으로 볼 수 없는, 분명한 오역이다. 아버지는 달리다 죽게 하는 것이 실제로 ‘더 가벼운’ 벌이라고 하더라도 개를 생각해, 또는 남의 눈을 의식해서, ‘더 가벼운’ 벌을 내릴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문6)의 스미스의 번역은 원문과 다른 의미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원문과 반대의 의미를 전달하는 점에서, 번역전략으로 볼 수 없고 잘된 번역도 아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달리게 하는 게 ‘가벼운’ 벌이라는 남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버지라는 인물을 완전히 잘못 분석한 것이다. 아버지가 개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대신 달리다 죽게 하는 ‘가벼운’ 벌을 내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채식주의자』에서 아버지는

딸 영혜가 ‘채식주의자’가 되는 데 발단이 되는 사건(어릴 때 키우던 개를 아버지가 잔인하게 죽이는 광경을 본 후, 그 고기를 먹음) 및 ‘채식주의자’에서 정신질환자가 되게 한 결정적인 사건(아버지가 뺨을 때리며 억지로 고기를 먹이려 하자 반항하며 칼로 손목을 그음) 모두에서 핵심 인물이다. 스미스는 이처럼 중요한 인물인 아버지를 잘못 묘사하고 있다. “milder punishment”를 주는 관대한 모습의 아버지는 원문 작가 한강이 전하는 메시지와 반대되며, 『채식주의자』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폭력’=‘육식’, ‘육식’=‘폭력’이라는 중심 주제와 어긋난다.

이러한 한국어 원문의 내용을 모른 채 스미스의 *The Vegetarian*만 읽는 영어 독자는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읽는 독자와 완전히 다른 내용을 읽게 된다. 잘못된 내용 전달은 아래 예문에서도 나타난다.

예문7)\*

『채식주의자』 p. 55-56 : [...] 내일은 처형이 자리를 지킬 테고 모레면 아내는 퇴원할 것이다. [...]

다음날 밤 아홉시에 나는 병실을 찾았다. 처형이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았다.

“피곤하시죠?”

“아이는……”

“지우아빠가 오늘은 안 나가고 있어요.”

[...]

“집사람은요?”

“계속 잤어요. 말 시킴도 대답 안하고, 밥은 잘 먹었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언제나 내 마음을 움직이는, 처형 특유의 사려깊은 말씨가 내 날카로운 기분을 다소나마 다독여주었다. (필자강조)

*The Vegetarian* p. 52: [...] I expected that Yeong-ho would take my place, and that the day after tomorrow my wife would be discharged. [...]

At nine o'clock the next evening I visited the ward. Yeong-ho greeted me with a smile.

“You must be tired, no?” he said.

“How are the children?”

\* 영미문학연구 최근 호(2017)에 실린 김변의 논문[14]도 본 예문의 오역을 지적한다. 참고로 필자는 본 논문을 투고한 후, 논문 심사위원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김변 논문을 접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Ji-woo’s dad’s** staying with them today.”

[...]

“How’s my wife been?”

“She’s just been sleeping. You can see that without having to ask. She ate what they gave her ... it seems she’s going to be okay.”

Yeong-ho was clearly trying to be considerate, and he did manage to soothe my sharp mood a little. (필자강조)

*The Vegetarian*을 읽는 영어 독자는 예문7)을 읽으며 아무런 이상(異常)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즉, 영어 텍스트만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스미스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한 오역들이 나타난다. 첫째, 밑줄 친 “Yeong-ho”(영호)는 화자(I)의 처남으로서, 한국어 원문의 “처형(인혜)을 잘못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점선 밑줄 표시한 “You can see that without having to ask.”는 원문의 “말 시켜도 대답 안하고.”의 번역인데 이 또한 한국어 독해 및 인물 분석이 잘못된 데서 나온 오역이다. 셋째, 마지막 문장의 밑줄 친 “Yeong-ho was clearly trying to be considerate”는 첫 번째로 지적한, 처형을 처남으로 오역한 것과 연결되는 잘못으로, 역시 인물 분석이 잘못된 데서 나온 오역이다.

이제 상기 3회의 오역을 자세히 살펴본다. 첫째, “처형”을 “처남”으로 번역한 것은 영미권보다 복잡한 한국의 친족 호칭에 익숙하지 않은 스미스의 실수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호칭 실수가 아니다. 이어지는 대화에서 ‘아이들’(the children)에 대해 물어본 것, 그리고 “지우아빠가 아이들과 같이 있다”(Ji-woo’s dad’s staying with them today.)고 번역한 것을 볼 때 여기서는 “처남”(Yeong-ho)이 아닌 ‘처형(지우엄마)이 병실을 지키고 있다고 이해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호칭 실수라기보다는 번역 소홀로 보인다.

다른 원인은 스미스가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점과 인물분석을 잘못된 데서 찾을 수 있다. 영혜가 병원에 입원하자 언니 인혜가 동생을 간호하며 병실을 지키고, 영혜의 남편은 일하러 회사에 갔다가 퇴근 후에 아내를 보러 온다. 한국 독자들에게 이 상황은 이상할 것이 없다.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 중에 환자가 생겼을

때 주로 여성이 병간호를 한다. 남성은 일을 하여 생계를 책임지고 집안의 여성이 아이를 돌보고 살림을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니 책임감 강한 말이인 인혜가 동생의 병상을 지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인혜는 작품 중·후반부에서 자신의 남편과 영혜가 불륜을 저지르고 영혜가 정신병원에서 지내게 되면서 다른 가족들이 연을 끊었을 때도 끝까지 동생 곁을 지키는 인물이다(예문8) 참조). 그렇기에 인혜가 아닌 남동생 영호가 영혜의 간병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영호는 인혜처럼 영혜와 자매지간의 끈끈함도 없고 성격도 아버지를 닮아 다혈질이다. 설사 영호가 간병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영호네는 아직 아이가 있다는 애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물어본다는 것부터가 오역이다. 만약 영호가 간병을 한다면 그의 “아이”는(또는 “아이들”)은 지우아빠가 아닌 아이 엄마가 볼 것이기 때문에, ‘지우아빠가 같이 있다’는 번역은 잘못이다.

이러한 잘못된 인물 분석은 세 번째 오역에서도 나타난다. 밑줄 친 “언제나 내 마음을 움직이는, 처형 특유의 사려깊은 말씨가 내 날카로운 기분을 다소나마 다독여주었다.”는 원문을 보면 화자(I)가 처형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제나”, “처형 특유의” 등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작품 내 다른 부분에서도 처형의 성품과 말씨를 칭찬하고 자신의 아내와 비교하기까지 한다. 그런데 왜 이를 “Yeong-ho was clearly trying to be considerate, and he did manage to soothe my sharp mood a little.”과 같이 처남으로 바꿔 번역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인물분석이 잘못됐거나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처형’을 ‘처남’으로 바꾼 것이라면, 스미스가 어떤 효과를 노리고 그렇게 한 것인지 짐작하기 어렵다. 언니 인혜 대신 남동생 영호가 영혜 곁을 지키다가 영혜의 남편이 오길 기다려 ‘사려 깊은 말씨로 마음을 다독이는’ 상황은 영어 독자에게 오히려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독자가 처남-매부 지간인 영호와 “나” 사이에 남녀 사이 같은 애뜻한 감정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번역은 영어 독자의 작품 이해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중대한 오류다.

예문7)의 두 번째 오역은 (인혜가) 말 시켜도 (영혜

가) 대답 안했다'는 의미를 "You can see that without having to ask."로 잘못 번역한 것이다. 이 역시 스미스가 한국어 독해를 잘못된 오역이다. 또한 원문은 영혜가 말없이 잠만 잤지만 밥은 먹었으니 괜찮을 거라며 인혜가 영혜 남편을 안심시키는 내용인데, 영어로 "묻지 않아도 그래 보이잖아요."라거나 "보시다시피"처럼 쓰는 듯한 차가운 말투로 바꾸면 독자는 "언제나 내 마음을 움직이는", "사려 깊은 말씨"를 들을 수 없고, 그 말씨에 풀리는 "내 날카로운 기분"을 공감할 수 없다. 이 또한 원문의 인물분석 및 인물관계 분석이 잘못된 데서 나온 오역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예문8)

『채식주의자』 p. 169 : [...] 돌연 병로해진 부모는 더 이상 둘째딸을 보려 하지 않았고, 짐승만도 못한 사위를 연상시키는 큰딸과도 연락을 끊었다. (필자강조)

*The Vegetarian* p. 144 : [...] Their parents, whom the whole sorry saga seemed to have greatly aged, didn't make any further effort to visit Yeong-hye, and even severed contact with their elder daughter, In-hye, who reminded them of the despicable way they'd treated Yeong-hye. (필자강조)

예문8)도 잘못된 인물 분석과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오역이다. 밑줄 친 "In-hye, who reminded them of the despicable way they'd treated Yeong-hye"는 원문과 비교할 필요 없이 영문 자체로도 문제가 많다. 먼저, 영혜의 부모는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이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행동은 딸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채식주의자』 p. 48, p. 58 참고). 또한, 잘못이라 생각한다하더라도 그 잘못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인혜(In-hye)가 아니다. "짐승만도 못한 사위를 연상시키는 큰딸"이라는 원문을 보면, 영혜에 대한 'despicable treatment'의 주체는 "사위", 즉 인혜의 남편이다.

이 오역에는 스미스 개인의 가치판단도 작용했다. 영혜의 부모는 영혜에게 고기 먹기를 강요하고 억지로 먹인 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스미스는

그들의 행동이 잘못이라고 판단해 "the despicable way they'd treated Yeong-hye"라고 잘못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 III. *The Vegetarian*은 번역인가, 다시 쓰기인가?

앞에서 예로 든 오역들은 단순히 원문과 달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영어 독자가 읽는 *The Vegetarian*은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아니라는데 있다. 상기 예에서 보듯이, 잘못된 인물 분석과 잘못된 주제(theme) 파악으로 인해 중대한 오역들이 나오면 이들이 모여 *The Vegetarian*을 한강의 『채식주의자』와는 다른 주제, 다른 인물,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결국 한국어 『채식주의자』의 독자와 영어 *The Vegetarian*의 독자는 서로 다른 작품을 읽고 서로 다른 내용을 이해하게 된다. 즉, *The Vegetarian*은 『채식주의자』의 번역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The Vegetarian*의 오역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The Vegetarian*은 스미스가 충실성과 정확성이라는 번역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원문 내용을 무단 삭제하고 변용하며 첨가하는 저자의 권한을 누렸다는 점에서 '번역'이 아니다. 또한, *The Vegetarian*은 스미스가 온전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로 쓴 새로운 작품도 아니다. *The Vegetarian*은 영어권 독자를 겨냥한 『채식주의자』의 영어화(Englishization) 버전(version)이다. 다시 말하면, 영어권 독자에 맞게 현지화한 로컬리제이션(localization) 버전이다. 이는 *The Vegetarian*은 "영문학의 리듬(rhythm)과 결(texture)로 온전히 다시 쓰여진 작품"(p. 50)이라고 한 김영신[15]의 분석과 일치한다. 노승영[16]도 스미스가 "한국 문학을 영국 문학으로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고 했다.

여기서 번역(translation)과 로컬리제이션(localization)의 차이를 간략히 설명하면, 번역은 한 언어로 표현된 메시지를 다른 언어로 전달하는 것이고, 로컬리제이션은 여기서 더 나아가 대상 고객(customer)의 언어, 문

화, 기호(preferences)에 맞게 내용을 개작(adapt)하는 것이다[17]. 로컬리제이션은 IT용어인데, 어떤 웹사이트 내용을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바꾸는 것이 번역이라면, 로컬리제이션은 번역은 물론이고 해당 문화에 맞게 웹사이트의 디자인, 색갈, 글씨체, 그림이나 사진과 같은 삽입 이미지 등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18]. 예를 들어 중국 시장을 겨냥한 웹사이트를 만들 때, 한국어 웹사이트의 배경에 쓰였던 검은색은 로컬리제이션 과정에서 붉은색이나 황금색으로 바뀌게 된다. 중국인들은 검은색을 싫어하고, 행운의 색인 붉은색과 금을 연상시키는 황금색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2016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은 이러한 『채식주의자』의 영어 현지화 버전 *The Vegetarian*에 주어진 상이다. 정확히 말하면 오토이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수상한 것이 아니며, 『채식주의자』의 번역으로서 수상상도 아닌 것이다. 이렇게 번역과 현지화가 혼재된 스미스의 *The Vegetarian*은 평단의 인정과 독자들의 환영을 받으며 새로운 번역의 조류(潮流)가 되었다. “성공한 영문학”으로 자리 잡은 *The Vegetarian*이 불러온 새로운 바람은 앞으로 한국문학의 영어번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결론에서는 *The Vegetarian*의 성공의 의미를 돌아보고 향후 한국문학의 영어번역을 위한 번역계와 학계의 역할을 생각한다.

#### IV. 결론 및 제언

앞에서는 *The Vegetarian*의 ‘번역’ 상 문제점을 주로 논했지만, *The Vegetarian*이 기여한 바도 분명히 존재한다. *The Vegetarian*의 맨부커상 수상은 한강의 작품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고 대중에게 번역의 중요성을 인식시켰다. 번역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번역가의 위상도 함께 높아졌다. 이와 함께 *The Vegetarian*이 영어권 독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면서 한국문학의 영어번역에서 독자중심 번역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금까지는 번역에서 원문에 대한 충실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The Vegetarian* 같은 “창작 수준의 번역”[3]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생겼

다. 번역가 김석희는 “매끈한 번역을 위해 원본의 중요한 문장을 뺄 경우, 정도의 문제겠지만, 이는 맞나 틀리냐의 문제라기보다 온당한 것이냐 그렇지 못하냐의 문제”라며 “심각하지 않다면 작품의 원래 맛을 살리는 창작 수준의 번역을 지지한다.”[3]고 했다. 이처럼 번역에 대한 기존과 다른 시각은 ‘무엇이 바람직한 번역인가’, ‘문학번역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촉발시켰다. 이와 함께 한국어를 잘 아는 외국인 번역가를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었다. 모두 *The Vegetarian*이 맨부커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면서 시작된 변화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번역가와 학계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먼저 번역학계는 직역이나, 의역이나 또는 원문중심이나, 독자중심이나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번역 독자층을 넓히고 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스미스의 ‘번역’이 원문에 충실하지 않아 문제라고 한다면, 오역지적에서 나아가 원문 충실도를 높인 재번역본 또는 수정번역본이 나오도록 학계가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앞에서 지적했던 생략된 주어를 잘못 파악한 경우나 단어 뜻을 몰라 잘못 번역한 경우, 작품의 인물 및 주제 분석이 잘못된 경우 등은 반드시 교정해서 다시 출간하도록 해야 한다. 이 예시들은 스미스가 영어 독자를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내용을 바꾸거나 원문과 동일한 문학성을 재현하기 위해 ‘창의적으로 번역’한 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스미스는 『채식주의자』를 번역한 후, 영국의 전문 교열가로부터 영문 교정을 받았으나 원문과 번역본의 대조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19]. 안타까운 것은 상기 오역들 모두 원작자와 내용을 확인하고 따로 한국어 점검을 받았다면 피할 수 있었던 문제라는 점이다. 번역가가 원문과 대조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고, 책을 낸 출판사도 이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맨부커상 최종심사에서도 원본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던 것은 영어권의 한국문학 번역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낸다. 이러한 문제의 교정 없이 *The Vegetarian*이 “번역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텍스트북으로 사용해도 좋을 모범”[20]으로 받아들여진다면 향후 한국문학의 번역



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것이다. 결국에는 한국인의 한국 이야기를 외국인의 입맛에 맞춰 물리적·화학적으로 변형시킨 ‘번역 아닌 번역’만 남게 될 것이다. 한국문학 번역의 미래를 위해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고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 학자들의 몫이다.

독자를 위해 번역가가 할 일은 자신의 ‘번역’의 정체성을 밝히고 번역, 로컬리제이션 등 다양한 버전을 제공함으로써 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독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번역가가 자신의 번역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하여 독자의 선택을 도와야 한다. *The Vegetarian*의 경우, 맨부커상 수상으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스미스가 어떤 의도로, 어떻게 『채식주의자』를 번역했는지, 그의 번역관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됐지만, 대개의 경우 번역가의 존재는 드러나지 않는다. 전통적으로 번역가는 ‘투명인간’ 또는 ‘존재를 드러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인식되어 온 까닭이다. 대부분의 번역서에는 ‘역자 후기’나 ‘역자 서문’, ‘옮긴이의 말’ 등이 없다. 옮긴이의 글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번역에 대한 설명이 아닌, 원문 ‘작품 해설’인 경우가 많다. 이제 번역가는 위와 같은 ‘역자 후기’와 인터뷰, 기고 등을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의 번역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번역가가 고객이나 출판사 등으로부터 번역의뢰를 받을 때 ‘번역 브리프’(translation brief)를 받듯이 번역가도 자신의 번역에 대한 ‘번역가 브리프’(translator’s translation brief)를 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번역 브리프’가 일종의 ‘번역 의뢰서’로서 번역가에게 번역 목적, 대상독자, 번역 텍스트 유형 등의 정보를 준다면, ‘번역가 브리프’는 번역가가 설정한 대상독자와 번역의 목적, 번역의 성격 또는 유형(원문중심/독자중심, 번역/로컬리제이션) 등의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한다. 이를 통해 독자는 여러 버전 중 어떤 번역서를 선택할지 판단하고 그 안내에 따라 해당 번역서를 읽을 수 있다. ‘번역가 브리프’는 상기한 ‘역자 후기’/‘역자 서문’/‘옮긴이의 말’이나 책 표지, 책 띠지, 웹페이지의 ‘출판사 책 소개’ 등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제공 가능하다.

이러한 ‘번역가 브리프’는 독자의 이해를 돕고 독서

만족도를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 번역가는 ‘역자 후기’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독자는 번역에 대한 설명을 읽으면서 번역가의 번역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확인할 수 있다. 전현주[21]는 ‘역자 후기’가 번역의 품질을 보증(p. 216)한다고 했고, 김순미[22]는 ‘역자 후기’는 다른 번역본과의 차별성을 강조하여 번역본을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p. 73)고 했다. 또한, 번역방법, 번역전략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인신공격성 오역지적질”[23](p. 97)로부터 번역가를 보호하는 기능도 한다.

진정한 독자 중심 번역이란 목표 독자에 맞춰 윤향, 각색한 번역이 아니라,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독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번역이다. 이렇게 독자의 선택을 받는 번역이 늘어나고 독자의 만족도도 높아진다면, 번역 수요가 늘고 다양한 버전의 번역 텍스트에 대한 요구도 생겨나 번역 및 문학 창작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정착되어 더 많은 사람이 한국문학을 읽고 향유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한국문학이 세계화되는 길이며 노벨상 수상보다 값진 보상이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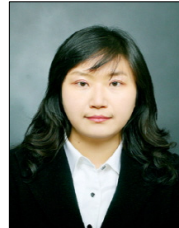
- [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17/0200000000AKR20160517059900005.HTML>
- [2] <http://www.hankookilbo.com/v/bc:550907900d49269015b3d98bd9654b>
- [3] <http://news.joins.com/article/21100307>
- [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09/0200000000AKR20170109032300005.HTML>
- [5] <http://www.bbc.com/news/world-asia-36309105>
- [6] 조재룡, “번역은 무엇으로 승리하는가,” 문학동네, 제90호, pp.689-713, 2017.
- [7] 김대중, “채식주의자 번역 속 의역/오역 사례를 통해 살펴본 번역가의 과제 연구,” 인문과학연구, 제51권, pp.31-59, 2016.
- [8] 이인규, “채식주의자 영어번역,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번역학회 2017 봄 학술대회 발표논문

- 집, pp.115-124, 2017.
- [9] 한강, *채식주의자*, 창비, 2007.
- [10] D. Smith, *The Vegetarian*, Hogarth, 2015.
- [11] 이강선, “고맥락에서 저맥락으로: 두 권의 채식주의자,” *겨레어문학*, 제57집, pp.277-312, 2016.
- [12]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53010024867243>
- [13] 김가희, “해석과 창의적 다시쓰기로서의 문학번역: *(The) Vegetarian*을 중심으로,” *영어권문화연구*, 제9권, 제3호, pp.29-44, 2016.
- [14] 김번, “채식주의자와 *The Vegetarian*: 원작과 번역의 경계,” *영미문학연구*, 제32권, pp.5-34, 2017.
- [15] 김영신, “미국화인가 자국화인가: 한강의 채식주의자 번역을 중심으로,” *동서비교문학지널*, 제37호, pp.37-55, 2016.
- [16] <http://www.vogue.co.kr/2016/07/15/%EB%B2%88%EC%97%AD%EC%9D%98-%EC%A1%B0%EA%B1%B4/>
- [17] <https://www.sajan.com/difference-between-translation-and-localization/>
- [18] <http://content.lionbridge.com/the-difference-between-translation-and-localization-for-multilingual-website-projects-definitions/>
- [19] <http://www.hankookilbo.com/v/567e61f2126049a09968dfd772361980>
- [20] [http://www.hankookilbo.com/v\\_print.aspx?id=6516f738653e415a8f3dc612f71b6757](http://www.hankookilbo.com/v_print.aspx?id=6516f738653e415a8f3dc612f71b6757)
- [21] 전현주, “역자의 (불)가시성-역자 후기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제12권, 제2호, pp.211-229, 2009.
- [22] 김순미, “번역사의 지위와 가시성을 중심으로 본 역자후기의 내용과 기능,” *번역학연구*, 제15권, 제3호, pp.33-81, 2014.
- [23] 이인규, “번역비평에서 오역지적의 문제,” *번역학연구*, 제16권, 제5호, pp.89-112, 2015.

저자 소개

신혜정(Hyejung Shin)

정회원



- 2000년 8월 : 전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문학사)
  - 2003년 8월 : 전남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문학석사)
  - 2005년 5월 : 미(美) 몬트레이 국제대학원(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통번역대학원 한영과(번역석사)
  - 2007년 8월 ~ 2009년 8월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영과(통역번역학 박사수료)
  - 2012년 3월 ~ 현재 : 조선대학교 영어과 교수
- <관심분야> : 통번역학, 코퍼스 언어학, 문학번역